

제품안전정책 방향 안전은 제도적 완결성과 공신력 확보가 중요



기술표준원
최갑홍 원장



안전하고 안락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기술혁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품안전 정책의 확립에 대한 어려움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정책입안자의 전문성과 미래 예측적 통찰력의 확보가 긴급하고 감시 기능의 보편화가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소비자의 기

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제도 개선과 감시 기능의 확장에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여 오고 있다. 그동안 일반화되어 있던 안전인증제도를 세분화하여 제품의 잠재적 위해정도에 따라 인증방법을 차별화하고,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자율적 합의에 의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시적 자율 제품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기존 2개과에서 추진하던 안전업무를 4개과에서 담당토록 하

였으며, 시장조사를 통한 불법, 불량제품의 근절과 관계법령의 정비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현실적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제도적 완결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안전정책의 추진방향을 재정비하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안전정책의 제도적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규제기관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증진, 기술기준의 국제규범화와 시험검사의 적합성, 관계법령의 정비와 국제협력의 증진 등이 그것이다. 둘째, 안전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도있게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불법 불량 제품과 관련기업 정보, 안전 수칙과 사용상의 정보, 안전사고와 구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정부와 규제기관 또는 소비자간의 정보를 쉽고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품안전자율이행(VAS) 마크

셋째, 제품안전에 대한 안전점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안전 관리는 제품이 출하 또는 통관되기 이전에 안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진입의 지연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상품기획단계에서부터 안

전성을 염두에 둔 제품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제품별 특성을 감안한 안전점검 체크포인트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관련제도와 기준을 끊임없이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할 계획이다. WTO/TBT협정 이후 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에 따른 관련제도의 국제규범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다. 기후조건과 기존 인프라의 차이, 법제도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는 국제표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우리 기술의 국제규범화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끝으로, 안전감시에 대한 제도적, 휴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규제기관의 감시기능은 물론 소비자의 감시기능의 보편화와 온-오프라인의 감시기능 등이 끊임없이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

안전은 제도적으로 완결해야 하며, 절차의 합리성과 결과의 공신력 확보, 사전 예시적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기술표준원과 함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안전관리 역량이 소비자의 안전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